



에어부산-BNK부산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에어부산이 BNK부산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마호진 영업본부장(가운데 우측)과 정영준 부산은행 객지원그룹장(가운데 좌측)을 비롯한 양사 직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에어부산

에이수스 코리아 신임 지사장에 책 황 선임

에이수스는 한국 시스템 비즈니스 그룹에 책 황 신임 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지사장은 2011년 사내 변호사로 에이수스에 입사, 대만 본사 시스템 비즈니스 그룹 영업부서와 홍콩지사 기업성과관리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글로벌비스, 인천에 중고차 경매센터 열어

현대글로벌비스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오토벨 인천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총 1만7851㎡(5400평) 규모로 약 60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300석의 경매장, 차량 정밀 점검 시스템 등을 갖췄다. /현대글로벌비스

인사

◆법무부 ◇3급 전보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 ◇4급 승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윤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4급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충섭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승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동민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양병곤 △광주소년원장 신원식 △춘천소년원장 오상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유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전상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조동기 △청주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 김대요

부음

▲주영임씨 별세, 전근식(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정식씨 모친상, 정연미·오미희씨 시모상, 윤달섭씨 빙모상, 전영준·전영우·전슬기씨 조모상 = 10일 오후 4시9분 별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장지 충북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선영. 031-787-1500
▲유상호씨 별세, 최인호(쌍용C&E 대외협력팀장)씨 장인상 = 11일 오전,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장지 동두천 크리스찬골드파크. 031-951-7444

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서 상 싹쓸이

현대차 5개, 기아 4개 등
총 11개 부문서 수상 영예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총 11개 부문에서 미국 ‘2022 굿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 1950년 시작해 2022년 72회째를 맞은 디자인 대회다.

‘202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는 5개, 기아는 4개, 제네시스는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선 현대차는 운송 디자인 부문



현대차 세븐(SEVEN) 콘셉트.

에서 ▲트레일러 드론 ▲세븐(SEVEN) 콘셉트, 로보틱스 디자인 부문에서 ▲PnD(Plug & Drive) 모빌리티 ▲L7 ▶모베드(MobED) 등 5개 제품의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니로 ▲EV9 콘셉트 ▲마젠타(Mag

enta)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총 4개 분야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 SUV ‘니로’는 주최측으로부터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차량”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 최초 ‘테라 카르타 실’ 수상

英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 환경판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 기업 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 기업 최초로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테라 카르타 실’을 수상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2021년 추진한 테라 카르타는 인류의 자유를 상징하는 영국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의 환경판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로

드맵을 제시한 기업들에 테라 카르타 실을 수여한다. 올해에는 애플, GSK, 사노피 등 19개 기업이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까지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침이다. 먼저 저탄소 및 에너지 고효율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별 상세 에너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열원을 변경하는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공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하는 FEMS(공장 에너지 경영 시스템)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최초로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했다. RE100달성을 위해 사업장 전력 에너지를 효율화해 사용량 절감을 우선하는 동시에 기존 및 신규 공장에 태양광 설비 등 자가발전을 설비를 확대하고 외부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장 업무 차량도 친환경(전기, 수소차)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는 ▲G90

▲제네시스 ccIC(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총 2개를 수상했다. 특히 ‘G90’는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한 외관으로 품격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를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고객의 삶에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통해 사람과 모빌리티 간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코오롱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7억 기부



박형근 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장 상무(왼쪽),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이 연말 이웃 돕기에 동참했다.

코오롱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나눔 캠페인’에 성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8년부터 기부를 이어왔다. 성금 중 일부는 ‘셰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도시놀이터 개선 사업’에 지정 기탁,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오롱 박형근 상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희망나눔 참여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시몬스

시흥에 ‘시몬스 맨션’

시몬스가 경기 시흥 은행동에 ‘시몬스 맨션 시흥점’ (사진)을 열었다.

11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 시흥점은 시흥 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시흥·안산·부천 등 경기 남부 지역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울시 구로구 항동 고객의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시흥의 신도심인 은계지구 중심에 자리잡은 매장은 인근에 대형 주거 단지가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고객을 비롯해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방문객도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기중앙회, ‘충청지역 中企人 신년인사회’ 개최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지방자치단체, 정지권, 중소기업계 등 각계 주요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연말 납품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듯이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

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